



꿈틀꿈틀 용꿈소식지

남원용성고 매직 4 호

全北日報

남원 용성고, 전국 영농학생전진대회서 금2·동3 쾌거



남원용성고등학교(교장 이효원)는 27일 전남 강진 및 순천에서 열린 제47년차 전국FFK(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전북 최고 성적인 금상 2명, 동상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FFK전진대회는 농업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회로 올해에는 20개분야 1000명이 참여했다. 조경설계분야 전국 1등으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임요원(식물자원과 1년) 학생은 “처음 특성화고 진학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지금은 무척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선배들 중에는 공무원이나 한·뉴질랜드 FTA연수생으로 해외연수를 가신 분도 있다. 나도 열심히 해서 당당한 사회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효원 교장은 “내년에는 전교생들에게 중장비(지게차, 굴착기 등)관련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기숙사 신축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중견기업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남원용성고등학교는 자유학기제 지원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목공체험교실, 압화체험교실, 로봇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 ‘꿈틀꿈틀 용꿈 대박 프로젝트’ 브랜드명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南原新聞

전북 최초 남원용성고 한-뉴 농축산업 훈련비자 연수생 최종 합격

청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농축산업 분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한 한-뉴 농축산업 훈련비자 사업에 우리지역 특성화고인 용성고등학교(교장 이효원) **조다은, 진다현 학생(식물자원과, 3학년)**이 최종 합격했다.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한 조다은·진다현 학생에게는 뉴질랜드 체재비(홈스테이/기숙사)를 포함,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료 등이 지원되며 최대 52주간(18주 어학·직무연수, 12주 현장실무연수 포함)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게 된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현지취업도 가능하다.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에 헌신한 강근원 교사는 “우리학교는 체계적인 학교 내 교육활동은 물론 산업현장과 연계된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 정말 기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민의 시각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용성고등학교는 올해 기숙사 및 스마트팜 온실 신축, 전자로봇과 및 자동화기계과 실습실을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식물자원과 조다은



식물자원과 진다현



- ◆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도(토론학습의 활성화)
- ◆ 공무원(토목직, 농업직, 전기직, 기계직)반 운영
- ◆ 내실있는 자격증 지도(1인 2개이상, 2018년 1인 학생이 최고 9개 취득)
- ◆ 특수목적대학, 특성화고 특별전형 진학을 위한 내신관리
- ◆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한 우수대학 진학기회 부여
- ◆ FFK대비반(농업계열), 모바일로보틱스(전자로봇과), 메카트로닉스(자동화 기계과) 기능영재반 운영
- ◆ 예체능활동(윈드오케스트라, 스포츠클럽반)의 내실화